

광주시, 고위험 장소 방문자 검사 의무화

상무지구 유흥주점·사랑제일교회·서울 집회 방문자 대상

익명 보장·진단 검사 비용 면제...명령 위반 시 고발 방침

광주시는 유흥시설·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장소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이후 상무지구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25명의 지역 감염이 발생했다. 또 일부 시민들이 확진자가 대거 나온 수도권 지역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달 6일~16일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오는 23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방역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관련해 확진자 포함 1595명

을 검사했지만, 해당 시설 방문자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경북구역·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오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의무화 대상은 ▲8월 7일~13일 사랑제일교회 ▲8월8일 경북구역 인근 집회 ▲8월 15일 광화

문집회 등에 방문한 광주시민이다.

명령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시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또 위반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검사 의무 대상자 중 행정명령 만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형 시-그린뉴딜 시민 보고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사태 공동선포 및 광주형 시-그린뉴딜 시민 보고회에 참석해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과 그린뉴딜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코로나 직격탄' 관광지 방역요원 728명 채용

국비 54억 원 확보

전남도는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관광지 269개소 728명의 방역 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문체부에 신청해 국비 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문체부 지원예산 329억원의 22%로 전국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이는 국내 여행지로 인지도가

높은 제주도, 강원도 보다 높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약화된 관광객 속에서 청정 전남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채용된 방역 관리요원은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안내를 비롯해 2m 이상 거리두기, 관광객 동선 관리, 방역수칙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을 통해 20

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관광분야 경력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등이다.

일부 취업 취약계층 우대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유발된 일자리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역·관리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광지 방역 점검과 안전여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단12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임 병 정 (510725 - 1665511)
최 후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8 (남동리, 한국병원)

위 망 임병정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8월 20일

공 고 인 : 임순이, 임기정, 임순정, 임순옥, 임병중
주 소 : 광주 동구 반실로 100, 104동 902호 (산수동, 무등산광산프로그램)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8월 13일
공고기간 : 2020. 8. 20 ~ 2020. 10. 20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머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예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동구 전일생활문화센터, 전일대학가요제 전시회

광주 동구는 '전일245' 4층에 위치한 전일생활문화센터 마추집 공간에서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추억의 전시회'를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970년 11월부터 광주지역 방송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방송을 송출하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1980년 11월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일방송을 추억하고 5·18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신봉우 기자

서구, 장마 이후 돌발해충 선제적 방제 총력

광주 서구가 장마 이후 산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해충방제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창궐했던 미국흰불나방이 곳곳에서 예찰되는 등 시급한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구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이 잦은 상가, 주택지역은 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살포방식을 통해 방제를 추진한다.

조인호 기자

남구 "불합리한 제도·규제, 고쳐 봅시다"

광주 남구는 19일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 등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 발굴·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접수는 다음달 18일까지이며,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접수 기간 내에 공모 제안을 작성해 이메일(kh19580@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제안서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기업 및 가게 유휴공간 규제 ▲적극행정 규제 해소 분야 등 개이다.

김민정 기자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잔결음

광주 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2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13시 30분에 시작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공무원, 구의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아동구점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현황, 아동친화도,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등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어 14시부터 진행되는 원탁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주제로 아동과 시민이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토론을 실시한다.

서선옥 기자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

광주 광산구가 19~31일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는, 주민 행복 실현을 내용으로 접수된 다양한 제안 사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

주민투표는 마을 현안 중심의 '지역참여형', 구 전체 광역 단위 중심의 '구정참여형' 사업들로 나눠 실시되고,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2009년	240,833원	1.1배	1.7배	2.1배	2.7배	3.3배	5.3배
2019년	104,062원	1.7배	2.1배	2.7배	3.3배	3.9배	5.3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공역번호 1577-1000